

# 사바세계는 전디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心如畫師심여화사 雲水衲子운수납자 법정

올해로 도불 50주년을 맞아 경복궁 앞 갤러리 현대에서 '빛의 울림'이란 테마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기념전시회를 하고 있는 방혜자 화백(74). 61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면서 연 고별전에서 법정 스님을 보았으니, 선생 도불과 스님 만남은 나란히 간다. 반세기.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해도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나그네가 만난 분 가운데 스님과 가장 오랜 인연을 이은 어른이다. 50년 전 방명록에는 '心如畫師 심여화사 雲水衲子운수납자 법정 합장'이라고 적바림되어있다. 마음을 빛는 화가란 뜻으로 쓰지 않았을까. 법정 스님은 윤희 스님과 함께 <불교사전> 편찬 일로 서울에 와 계시 때였다.

"50년 전이나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께서 불교 정화운동을 하셔서 새로운 바람이 불던 때로 스님들이 산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사회 참여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200달러를 손에 쥐고 오른 유학길.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집에서 보내오는 적은 돈으로 가까스로 살아왔다.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가나와 똑같이 80달러 수준이었던, 가난한 나라 도움받기가 부끄럽고 양심에 걸렸던 선생. 유학한 지 세 해째 되는 1963년. 처음으로 그림 세 점이 처음 팔리자, 절반을 부모님께 부쳐드리고 자립한다. 그때 점심은 빵 한쪽에 달걀 한 알, 저녁은 쌀과 채소를 넣고 끓인 죽으로 살았다. 먹고 난 달걀껍질은 그림재료로 쓰고, 화포畫布가 떨어지면 차마를 찢어 그 위에 그림 그리며, 스스로 선택한 가난을 불씨삼아 예술혼을 불태웠다.

"가난은 마음을 비우게 만들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욕망이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1982년 전시회 때문에 귀국한 방혜자 선생. 고국에 돌아와서 흉도 밟아보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 위만 걸다가 돌아가게 되었다며 후배에게 하소연했다. 법정 스님하고 가까웠던 후배는 불일암에서 목을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 "후배 덕분에 불일암에서 일주일이나 머무는 행운을 누렸죠." 그동안 고국을 그리며 외국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절이나 크고 작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저녁이면 후박나무아래서 쏟아져 내리는 별을 헤아곤 했다.

"어디에 손 내밀지 않은 어른이 불쌍한 동포가 왔다며 큰 절에 내려가 찰밥과 맛있는 음식도 얻어다 주셨어요. 제가 작장불을 때서 밥을 할 줄 몰라서, 스님께서 손수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식구처럼 따듯이 대해 주시며, 사바세계란 전디고 살아볼만한 세상이라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 보았을 때보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다소 상기되어 말씀하는 선생 얼굴이 담긴 그림처럼 환히 빛난다.

"떠나오기 전에 보니까 땀감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묵던 방에다 봉투를 하나 살짝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그 봉투가 제 가방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았어요? 무슨 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해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고 단호하게 배운데 대한 조그만 성의조차 마다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사신 분이였어요." 무엇보다 담백하고 청렴한 수행자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러웠다고 돌아본다.

91년 귀국한 선생은 가장 먼저 불일암을 찾았다. 82년에 입은 은혜 깊은으로 프랑스에 모셔서 유럽 종교계를 돌아보시게 하려고 법정 스님을 초대했다. "망실임 없이 선뜻 마음을 내시고는 꼭 정학 스님과 함께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학 스님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비행기 표를 보내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원고료 받은 것이 있다고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파리에 스튜디오를 하나 구해드렸더니 두 달 동안 계시면서 유럽을 돌아보셨어요."

그때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장로 자녀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림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달래던 그 학생이 어느 날 느닷없이 '파리엔 절이 없어요?' 하고 물었다. 그 물음에 종교가 달라도 절은, 외국에 나와 사는 한국사람들에게 귀의처

선택한 가난을 불씨삼아  
예술혼을 불태웠다

시멘트 바닥 위만 걸다 갈 뻔한  
불쌍한 동포를 보듬어 준 어른

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학생을 가장 먼저 스님께 데리고 갔더니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스님께서 그때 이런 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울 수도 있는, 고향에 온듯한 느낌이 드는 명상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내신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보면 울고 싶은 때가 있다. 그러나 다 른 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실컷 울 곳을 찾이란 그리 쉽지 않다. 건축가 김중업은 집 어느 구석에서든 울고 싶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집을 지을 때 꼭 울음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방혜자 선생, 스님을 모시기 전에 파리에 있는 불자모임 사람들을 만나서 스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고 안내를 부탁했다. 1991년 5월 19일 만들어진 불자모임은 '재불교민불자회'다.

법정 스님을 모신 법석에서 이곳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또 자연스레 나왔다. 그때 정학 스님이 일을 꾸며보자고 선뜻 나섰다. "스님께서 따듯한 글과 말씀으로 우리 겨레 동포들을 보듬어 주셨다면, 정학 스님은 뒤에서 굶은일을 다 하셨어요. 파리와 서울 길상사를 만든 주역으로 최근에는 광주 무각사 중창을 하고 계시는데 타고난 미



감에다가 추진력이 대단하시죠." 선생을 뵈 파리 길상사를 떠올릴 수 없듯이, 청학 스님을 빼놓고 길상사 얘기를 꺼낼 수 없다.

건립 기금 모으기 위해 한-재불화가가 어울려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고, 법정 스님도 길상사 건립 모연募緣 강연회를 가졌다. 그밖에 많은 분들이 심시일반 마음을 모아 93년 파리 길상사가 문을 열었다. "제가 평소 애용하는 법장군 보살님과 이보란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길상회를 만들어 창건 초기 파리 길상사 어려움을 돕게 되었어요. 법정 스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길상회를 위한 법회를 해주셨습 니다." 이 열기가 뒷날 성북동 길상사 창건으로 이어 지니, 뜻으로 살피면 지난 10월 2일 '꽃비 내리는 날'이란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파리 길상사가 성북동 길상사 본사本寺인 셈이다.

"개원식 때 계를 받는다고들 하는데, 저는 수도修 道를 많이 해야 계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계를 받 을 생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개원식 날 보니까 지만 빼놓고 모두 다 계를 받았어요. 스님께서 몸시 섬섬하셨나 봐요. 범명을 다 지어놓으셨는데 저만 계를 받지 않았으니, 서울로 돌아가신 스님께서 편 지를 보내셨어요. '이 다음에 범명이 필요하면 연화 莊蓮華藏으로 하시오.' 요전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 고,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는지... 얼마나 웃었 는지 몰라요."

법정 스님은 시몽詩夢엄마(방화백)는 불자도 아니 면서 길상사 개원에 온 정성을 쏟았다고 말씀했다. 선생은 2년 뒤 법정 스님께 계를 받았다. "전에는 책 보내실 때 '시몽이 엄마에게' 라고 보내주셨는데, 계 를 주시고 나서는 꼭 '연화장 보살' 에게라고 보내주 셧어요."

개원식 전날 밤 선생 꿈. 법정 스님이 금빛 가사를 입으시고 앞서서 절 안으로 들어가시고 선생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데 일주일 만에 선 분이 선생에 게 묘연妙蓮이라고 돌을세김된 도자기로 만든 둥근 판을 주었다. 선생은 그 판을 가슴에 안고 절에 들었 다. 묘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스님이 범명을 연화장으로 지어놓 으셨다니 너무 신기하죠?"

현대미술 중심지 파리  
후불명화를 추상화로

"여긴 불란서 파리가 추상화로 한 번 해보지." 길상사 개원을 앞두고 법정 스님은 이곳은 현대미술 중심인 파리가 우리 전통후불명화보다는 현대화 가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했다. 절대미감인 법정 스님다운 발상이시다. 어쩌면 세계 최초 시도 일지도 모를 추상후불명화(1994)는 그렇게 태어났 다. 생명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추상으로 나타낸 탱 화. 선생은 이곳에 해마다 파리에 계신 많은 화가 작 품이 번갈아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리 길상사는 지금도 여전히 선생 후불명화 '피어오르는 생명'이 지키고 있다.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 우면산 관문사

주지 김영제

총무곽수산 재무구성해 노전 박인덕  
신도회장 장영일  
신도일동

관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불교회화의 시작  
"불화초"

- 전시일시 : 10월 2일~11월 27일  
오전 10시~오후 5시
- 관람문의 : 02)3460-5300  
(매주 월요일 휴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 7길 111번지 전화 : 02)3460-5300 / 팩스 : 02)3460-5200 www.gwanmunsa.org

## 무심사

### 지장보살, 금강역사 점안대법회

증명법사 : 혜인 큰스님(단양 광덕사, 제주 약천사 회주)

지장보살 봉안 복장불사 생축자 및 선망부모영가 1위당 금니 소금강경 영구히 모셔지는 복장불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지옥제도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과 선연 인연 맺으시어 가피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11시  
장소 : 무심사 극락보전

매주 토요일 천수다라니 철야정진기도 및 방생도량  
안내전화 : 053)616-8080, 055)532-0408.  
010-9898-0108  
계좌번호 : 농협 702058-51-003978 (예금주 : 무심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810번지  
무심사 주지 무심 합장



빛에 돌이 없다. 빛은 다 한 덩어리 듯 진리 또한 분명히 그럴 것이다. 빛을 그린 화백의 그림을 처음 봤다. 스님과의 인연을 들었다. 열흘 쯤 지난 뒤 스님과 선생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다. '빛과 빛이 만났다'고 느꼈다. 허벨이 빛을 그림자에 대한 답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녀의 몸속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밝음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스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가셨다. 빛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두분의 만남을 '빛의 만남'이라고 여긴다.

그 인연 메아리로 선생은 리움미술관장 홍라희 여사 부탁을 받아 익산에 있는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 입구 중앙 홀에 추상불화 세 점을 그려 보냈다.(1995) 그리고 전통과 현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보각사에서 선생이 그린 후불탱화(1998)에 맞춰 부처님을 모셨다. 보각사 후불탱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은 선생을 수소문해서 추상영단탱화(2007)를 모셨다.

햇빛이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 빛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빛이 되어 그림 속에 들어가 노래한다 돌이 '하' 되어 노래 부른다

이해는 금빛 물결을 그리는데, 선생 손 옆에서 또 다른 손이 나와서 그 빛을 그리고 있었다. 그 손을 따라 그리고... 손과 손이 들어면서 돌이 아니다. "제 손과 그 손이 하나가 되어 그려나가는데 화폭이 진짜 바다가 되어 출렁거리요. 그렇게 빛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빛을 그린다고 하는데 과찬이요. 빛을 그리다기보다는 빛의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지 않을까?"

-선생시

해초들이 있는데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면서 저런 것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 빛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한 지 60년 뒤에 생각지도 않게 그 세계가 나왔어요."

그 때 물속에 빛이 막 반짝이는 그 모습이 선생 어는 구석에 잠들어 있다가 60년 뒤에 솟아오르듯이 깨어났단 말씀이다. 그 화폭에 나그네도 어릴 적 냇가에서 봤던 그대로, 부처져 내려앉은 빛과 높고 낮게 찰랑이는 잔물결이 어우렁더우렁 영롱하게 재현되어 있다.

선생 꿈은 온통 빛이다. 물성과 빛이 하나가 되고, 물속에서 책을 읽는데 책이 젖지도 않는 꿈... 어느 꿈에서 커다란 화폭에 바다를 그리고 있었다. 반짝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범부는 自他の 다름을 걱정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곧 잘 눈에 띄는 광고물을 발견하게 된다. 두 얼굴을 대조해 놓고 수술 전·수술 후라고 표기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로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판별하기 어려운 영 판판의 얼굴이다. 수술 전 취약한 부분을 수술해 미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내면보다 외형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한다. 상호는 전적으로 외적인 문제이다. 외형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낮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석존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외적인 문제보다 내면세계의 확대와 내면세계 견고함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굴절된 마음, 일그러진 마음의 순화에 치중하여 마음 닦기를 한결 같이 역설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에 있는 것이다.

며칠 연휴가 끝나거나 방학이 되면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수술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옛 모습으로는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성인에게 걱정이 있었다. 그 하나는 덕을 닦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문을 열심히 익히지 못하는 것이며, 셋째는 의로운 것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며, 넷째는 자신의 착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범부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는 게 큰 걱정거리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화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일수이다. 그리고 돈타령, 출세타령, 시대타령, 이웃타령을 하다가 종국에는 부모타령까지 하며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모든 사단을 상대편에 돌리고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면접 때 외모를 많이 참작한다고도 한다. 그러다보니 입사시험을 치러야하는 젊은이들은 너 나 없이 성형외과를 만나들이 일수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세상에 어느 재벌이 얼굴이나 몸짱이었다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또한 위대한 정치인이나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다. 다 떨어진 배장방이를 입은 촌부와 값진 링크코트를 입은 부잣집 마나님을 보자. 그 마나님이 시선을 끈 것은 값비싼 외투 때문이지 그녀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다. 그 외투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나면 물결이 사나운 사람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반면에

판나 나는 배장방이를 벗어버린 촌부의 모습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이 세상에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는 뿌듯함을 볼 수 있다.

〈삼팔사략(十八史略)〉에 팔목상대(副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선비가 담소를 나누다 헤어져 3일 후에 만나면 예전의 친구를 알아 볼 수가 없어 눈을 비비고 보아야 만이 이전 친구를 알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상대 친구가 성형외과에 가 여기저기 뜯어 고친 것이 아니다. 촌음을 아껴 독서에 매진했던 선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신은 속 빠지고 만다. 이러한 사람은 날씨가 타분한 날의 육신과 마음의 상태와 흡사할 것이다. 타령조의 인생이 진취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뀌는 길은 삶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다. 성인의 걱정거리가 곧 나의 걱정거리로 여기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연소시키려 하는 것이다.

〈상서(尚書)〉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얼굴 좋은 것은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 이 말은 미모 보다는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몸짱, 일짱을 엄중히 경계한 말이 아니겠는가.

목적이식은 모든 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산에 오르면 그 주변에 많은 구름이 끼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구름은 목적이식이 있는 산악인 에겐 가시에 지나지 않는다. 가식은 오래 가지 않고 그 허구성이 이내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일상도 뭐 다를 게 없다. 세상에 진실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의술에 의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세월 앞에 그 인위적인 S라인도 얼얼도 퇴색하기 마련이다. 가식 없고 청순한 삶이야말로 값진 화장품의 향기 보다 그 내용이 오래가는 것이다.

우리말 가운데 '아무개는 상호가 좋다'는 말을 쓴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말한다. 상호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님의 상호를 말 할 때 구체적으로 32상 80종호로 말한다. 범부 중생과 다른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지녔고 80가지의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범어로 상은 lakṣaṇa라 하며 큰 특징을 말한다. 호는 anuvyaṅjana라 하여 작은 특징을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 명예증정 청봉 석정산 명진 석범운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희화) (종정실 경료실장 : 석법진)

Table listing church officials and members. Columns include: 원로회회장 (석흥선),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교구총무원 (김해총무원장 석창해, 거제총무원장 석덕운, 대구총무원장 석정명, 창원총무원장 석범일,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정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운 석수진, 석수해 석혜인 석지현, 석효선 석혜연),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미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호계원장 (석철오),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원장 석은오, 부원장 석대명, 부원장 김원열법사, 1 국장 석대덕, 2 국장 석혜인), 감사원장 (석동원).

입증 안내

- 1) 입증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방명록, 사진 3매,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방명록, 주지 임명장, 주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범음법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계좌번호: 농림 351-0227-1551-63 / 예금주: (사)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신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회회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종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칠 나날 사찰 및 종도모집을

범패, 육효, 학인모집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으나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